

보도시점

2025. 11. 4.(화) 11:00  
11.5(수) 조간

배포 11. 4(화) 09: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방역효과 유지하며 생태영향은 줄인다

-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 철거
- 충남, 전남, 경남 등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어선 존치
- 철거 후 실시간 모니터링, GPS포획트랩 배치, 기피제 살포 등 방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1월 4일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는 2019년 9월 최초 국내 ASF 발생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약 1,630km를 설치하여 ASF 질병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6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면서 생태계 단절,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소요구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3년 겨울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이례적인 폭설로 식생층이 동결되어 먹이활동을 위해 저지대로 이동하던 중에 울타리 근처에서 집단폐사함에 따라 울타리가 산양폐사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멧돼지 수색·포획 등 그간 정부의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99%) 등 농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제반 여건 변화도 울타리 관리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 ‘25년 10월말 기준 야생멧돼지 ASF검출건수는 55건으로 전년(719건) 대비 7.6% 수준

\*\*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관리시설

이번 관리방안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분석과 현장 검증,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효과,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마련됐다.

광역울타리 관리는 크게 철거와 존치로 구분하고, 철거는 우선철거·철거 확대·중장기 철거 검토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1단계 우선철거 구간(136.6km)은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이 높은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역과 낙석방지막·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이중으로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하여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지점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야생동물 이동상황 등 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의 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폐기하지 않고, 농가 및 농경지 주변의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2단계 철거 확대구간(235.7km)은 법정 보호지역내로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고, 감염 멧돼지 통과확률은 낮은 지역(25%이하)으로 2027년 이후 철거한다.

3단계 중장기 철거 검토구간(636.5km)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과 1~2단계 철거한 구간의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으나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하여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존치구간(621.2km)은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으로의 서진(西進), 남하(南下) 차단을 위해 최후 방어선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된다.

존치구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으로 과학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카메라 영상을 통해 농가주변에 야생멧돼지 출현이 확인되면 농장주 등에게 즉시 경고함으로써 차단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울타리 철거 전에는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사업으로 부분 개방된 구간(44개지점)을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타리 철거과정에서 공사 인부 등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을 제한하여 권역별로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신발·차량 소독 등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차단방역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간의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과학기술(AI)과 현장 중심의 관리로 방역과 생태가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리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현재 소강상태인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여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양돈농장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개요 및 생태 특성  
2. ASF 확산차단 방역대책 성과  
3. 야생멧돼지 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20)
		팀 장	서기관	황의정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김미정 (044-201-7498)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홍금용 (044-201-2546)

## 참고 1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개요 및 생태 특성

###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개요

- (정의) 출혈성 바이러스 돼지 전염병(일명 돼지 흑사병)
  - ※ (법정분류)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폐사율이 높아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위험성) 전염성이 높고 감염 시 치사율 100%(급성형, 잠복기 4~19일), 양돈농가 전파 확산 시 사회적 혼란 초래
  - ※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만 감염
- (감염경로) 주로 감염멧돼지 분비물(침, 분변 등)에 의한 직접 전파
- (증상) 고열( $40.5\sim 42^{\circ}\text{C}$ ), 기립불능, 피부출혈 등  $\Rightarrow$  10일 이내 폐사
- (예방·치료) 현재 백신 개발 진행중이나 안정성 보장된 상용화 백신 부재
- (발생국) 총 80개국(아프리카 32, 유럽 24, 아시아 21, 아메리카 2, 오세아니아 1)
  - (국내유입) 동유럽(조지아, '07~)에서 유행한 ASF 바이러스가 중국('18.8), 북한('19.5)으로 전파, '19.9월경 국내 유입(과주 양돈농장, 경로 불분명)
    - ※ 국내 야생멧돼지 및 사육돼지 ASF 바이러스 유전형은 조지아 및 중국과 동일

### □ 야생멧돼지 주요 생태 특성

- (수명) 8~10년, 사육상 최대 20년 / 행동반경 : 2~5km
- (짝짓기) 1년에 1회, 11~1월(11~12월 절정시기) / 임신기간 : 약 4개월
- (출산두수) 평균 5마리(4~10마리)
- (계절적 특성) 지방층이 두껍고, 열에 약한 동물로서 여름에 열을 식히거나 기생충 제거를 위해 진흙 목욕, 겨울철에도 진흙 목욕을 하기도 함
- (먹이) 식물성 먹이(도토리, 식물의 뿌리 등) 90%,  
무척추(지렁이 등)·척추(설치류, 뱀 등)동물 10%
- (생활환경) 깊은 산, 활엽수가 우거진 숲, 양지바른 곳에 땅을 파고 앞이 트인 곳을 선호함
- (가족생활) 암컷 중심의 가족단위로 생활, 수컷은 새끼를 돌보지 않고 짝짓기 후 다시 단독으로 생활

## 참고 2

## ASF 확산차단 방역대책 성과

### □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수색으로 질병발생 원인 차단

- 전국적인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으로 서식밀도\* 저감

※ ('19년) 2.2마리/km<sup>2</sup> → ('23년) 1.01마리/km<sup>2</sup> → ('24년) 0.96마리/km<sup>2</sup> (목표 0.7 마리/km<sup>2</sup>)

- 야생멧돼지 ASF 양성발생률은 '21년에 최고치(1.34%)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 ('20년) 0.88 → ('21년) 1.34 → ('22년) 1.14 → ('23년) 1.02 → ('24년) 0.76 → ('25.9) 0.10

#### < 연도별 야생멧돼지 제거실적 및 ASF 양성 발생건수 >

구 분	총 계	'19~'20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9월
포획·제거	513,051	49,357	97,250	71,943	76,736	72,311	94,534	50,920
양성 발생 건수	4,257	55	856	964	878	735	719	50
양성 발생률%	0.90	0.11	0.88	1.34	1.14	1.02	0.76	0.10
신규 발생지역	43	3	8	12	9	9	2	-

### □ 울타리 설치로 ASF 확산 속도 지연

- 광역 울타리 설치로 ASF 확산을 6년 이상 지연하고,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 등 양돈업계 방역대비 대응시간 확보 등에 기여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2.6)으로 발생지역 농가 방역시설 설치

- 현재, 경기 북부·강원·충북·경북 지역 내에서 확산 저지 중이며, '24.6월 이후 신규지역 확산없이 既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강상태

※ (중국) 최초 발생('18.8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전국으로 확산

#### < ASF 신규지역 확산 상황도 >

발생초기	1차 확산기		2차 확산기		정체기(소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참고 3

### 야생멧돼지 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

- (관리체계) ASF 방역효과, 생태적 가치·연결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4개 등급으로 선정기준을 정해 울타리 철거 또는 존치
  - (철거) ▲낙석방지막·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 설치된 지역, ▲방역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이 높은 지역
    - ⇒ 주요지점 실시간 모니터링(카메라 트랩 설치 등) 및 효과성 분석
      - ※ 철거구간에 GPS포획트랩 배치로 포획강화, 기피제 살포, 경광등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
  - (존치) ▲양돈농가 보호, ▲非발생지역(충남, 전남, 경남 등)으로의 서진(西進), 남하(南下) 차단을 위해 방어선 유지가 필요한 지역
    - ⇒ 취약구간 등 현장점검 강화, AI기반 감시체계 시범사업\* 추진
      - \* 농가주변 울타리에 카메라 트랩을 설치해 야생멧돼지 출현·이동상황 실시간 확인 후 농장주 등 관리자에게 경고하여 효과적 방역 유도(기후부·농식품부 협업)

관리 순위		선정기준	길이 (Km)	철거 시기
철거	우선 철거 (1단계)	① 국립공원* 내 설치 구간(설악산, 소백산) ② 이중·중복설치 구간(충북 최서단, 경북 최남단 경계부 제외) * 최근 2년간 ASF 미발생(이격거리 10km이내)	136.6 (8.4%)	'26년
	철거 확대 (2단계)	① 보호지역 내 생태계 연결성 75% 이상 ② 보호지역 내 ASF 감염 멧돼지 통과 확률 25% 이하	235.7 (14.5%)	'27년~
	중장기 철거 검토 (2단계)	① 보호지역 내 생태계 연결성 75% 미만, ASF 감염 멧돼지 통과확률 25% 초과 ② 보호지역 외 구간	636.5 (39.0%)	철거 후 모니터링 결과참고
존치		① 방역효과가 높거나 방어선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서쪽·남쪽 외곽 경계부) ②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이격거리 10km)	621.2 (38.1%)	-

- (부분개방)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양구·울진 등 22개 지점)하고,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야생동물 이동 등 생태계 영향조사(모니터링)



## <광역울타리 관리 현황도>

